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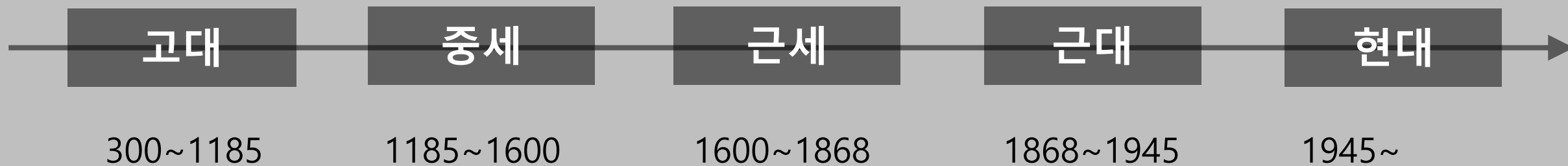
## 5. 권력의 충돌과 분열

---

부산대학교 2024년 여름계절수업 <일본의 역사와 문화>

조 승 미

## 일본사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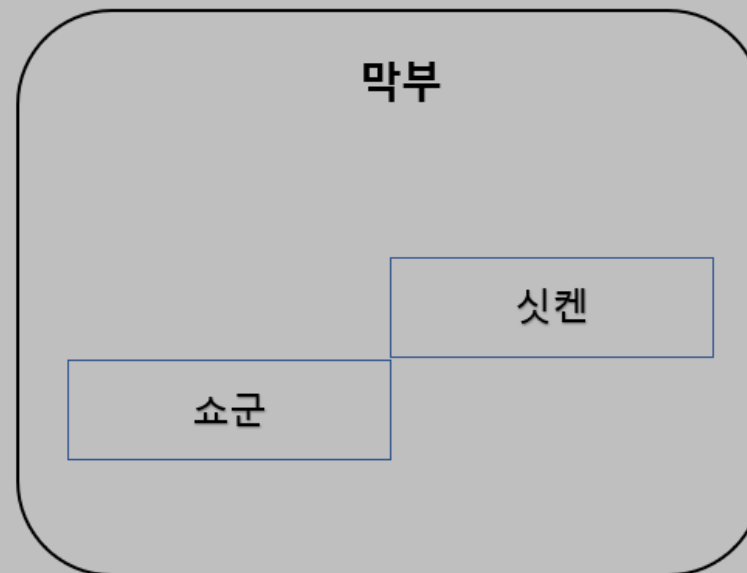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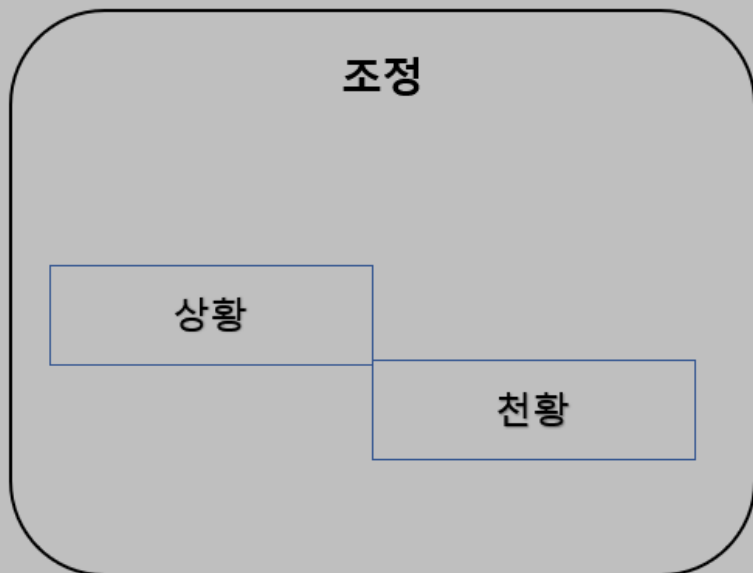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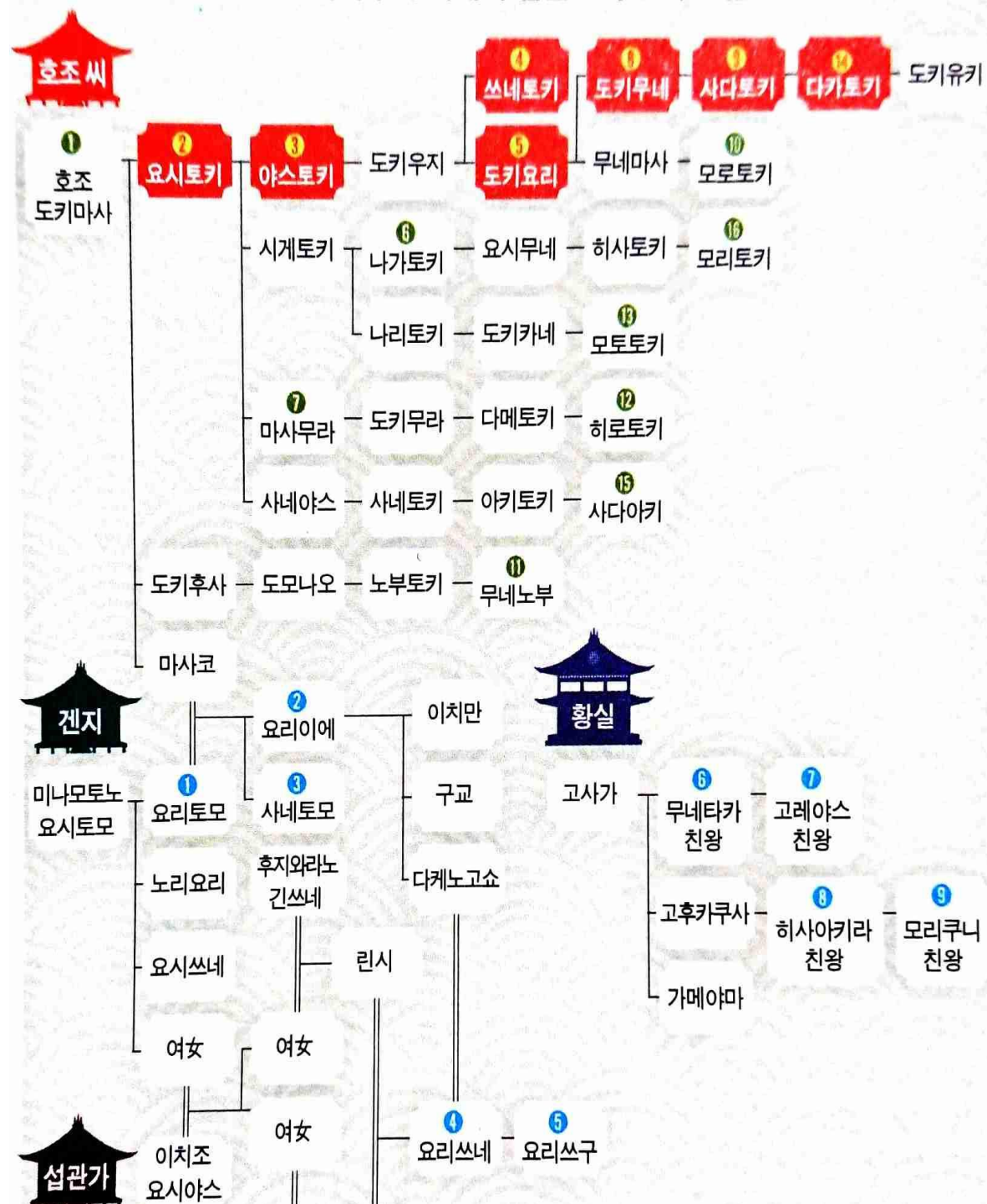
# 주제

- 호조 씨
- 몽골의 위협
-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과 남북조 시대
- 무로마치 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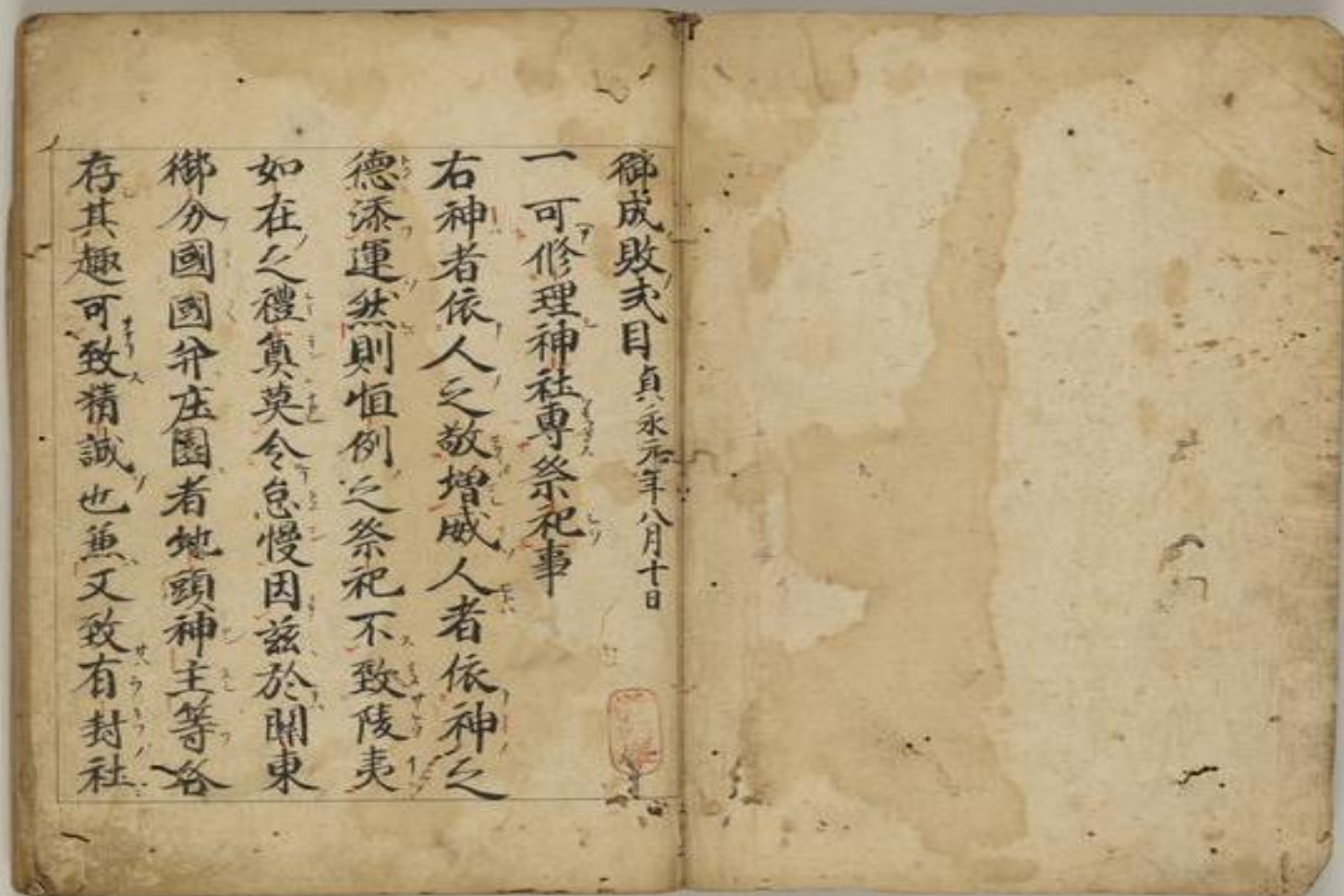
# ■ 막부의 실권자 호조 씨(北條氏)

- 미나모토노 요리모토 사후(死後)1199 정권을 장악한 호조 도키마사(北條時政)
- 13C 이후 대대로 호조 씨가 싯켄(執權) 계승하며 권력 장악
- 막부는 물론 조정의 정치까지 간섭
- 「고세이바이시키키모쿠(御成敗式目)」 제정 1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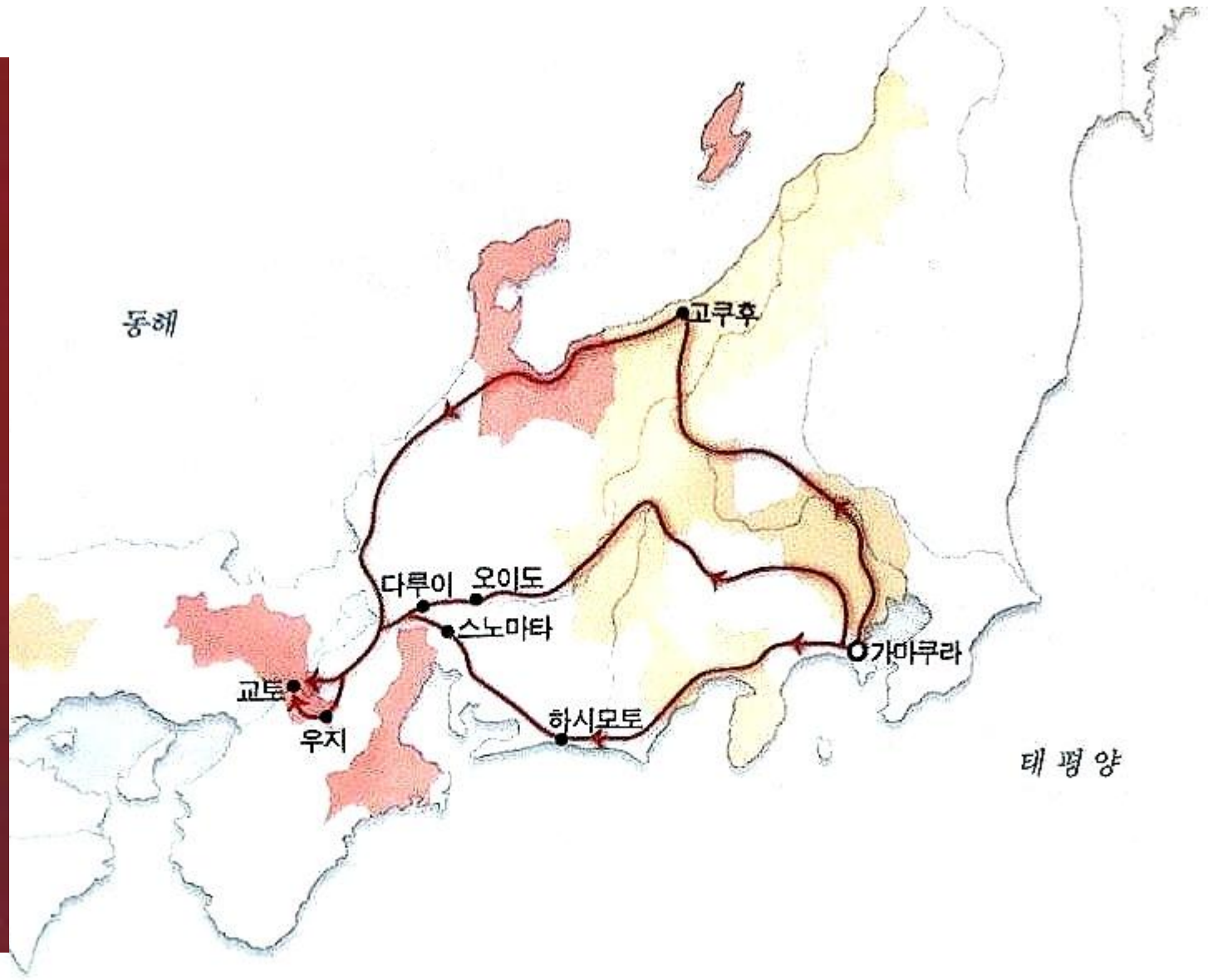
「고세이바이시키모쿠(御成敗式目)」



# 조큐(承久)의 난

- 막부 vs 조정이 맞붙은 최초의 전투
- 13C 초1221 쇼군 계승을 둘러싼 막부의 내분을 틈탄 고토바(後鳥羽) 상황의 막부 토벌 명령  
→ 막부의 반격: 호조 마사코(北條政子) 중심으로 무사들이 집결하여 교토 점거
- 상황 유배, 천황 퇴위, 고토바의 편에 선 귀족과 무사의 토지 몰수
- 고케닌들의 서국 지역 대거 진출  
→ 전국 정권으로서의 막부의 부상
- 싯켄이 주도하는 고케닌들의 집단 지도체제 확립







전근대 일본의 역사에서 최초이자 최후의 외세 침입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 몽골의 침입과 그 영향

- 쿠빌라이의 조공요구<sup>1268</sup>과 막부의 묵살
- 몽골군의 13C 후반 두 번에 걸친 침공
  - : 1차<sup>1274</sup>의 3만, 2차<sup>1281</sup>의 15만의 침공
  - 태풍으로 인한 연이은 퇴각과 궤멸
- 가미카제(神風) 및 신국(神國) 사상의 탄생
- 이후 가마쿠라 막부의 균열 원인 제공









‘몽골군이 침략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깃발을 들어 올리고는 공격하기 시작했다...몽골군은 끊임없이 커다란 북을 치고 징을 울렸다...그래서 일본군 말들이 놀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날뛰었다. 이에 일본군들은 말들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적에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 허둥댔 뿐이었다...몽골군 장수가 높은 곳에 올라가 퇴각을 명하자, 그 신호로 북이 울렸다. 그러다가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격 신호형 북을 울렸다. 그들은 이런 신호에 따라 전투를 수행했다...우리 일본군은 승리하건 패배하건 서로 가계를 밝히고 일대일로 싸우는 것을 관습으로 여기지만, 이 전쟁에서 몽골군은 전력을 한곳에 모아 맹렬한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 I 가마쿠라 시대의 문화

- 무사와 백성이 문화의 전면에 등장 시작
- 불교는 폭넓은 계층의 내면적 요구에 부응하는 종교로 변화
- 막부의 선종(禪宗) 보호
- 주자학 전래
- 민간 무역을 주축으로 한 대륙과의 교류 활발













# I 가마쿠라 막부의 붕괴

- 막부의 실권자 호조 씨의 조정 내부 관여
  - 지묘인(持明院) vs 다이카쿠지(大覺寺) 계통 간 대립 이용한 통제 (양통질립兩統迭立)
  - : 사실상 막부가 조정의 천황을 임명하는 사태
- 주자학에 심취한 고다이고(後醍醐)96대 천황 1318~1339의 막부 타도 시도1331
  - 막부는 고다이고를 유배 보내고 새로운 천황 옹립
  - 고다이고의 유배지 탈출
  - 진압 위해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파견
  - 다카우지의 배신을 시작으로 가마쿠라 막부 멸망1333



# 양통질립시대

# 남북조시대

# 남북조 합체









# 고다이고의 친정(親政)과 갈등

- 천왕 중심의 전제 정치 실현 노력 1333~1336

→ 현실적으로는 공무 협조(公武協調) 노선

- 고다이고와 다카우지 사이의 갈등

- 무사 세력의 중심이 된 다카우지 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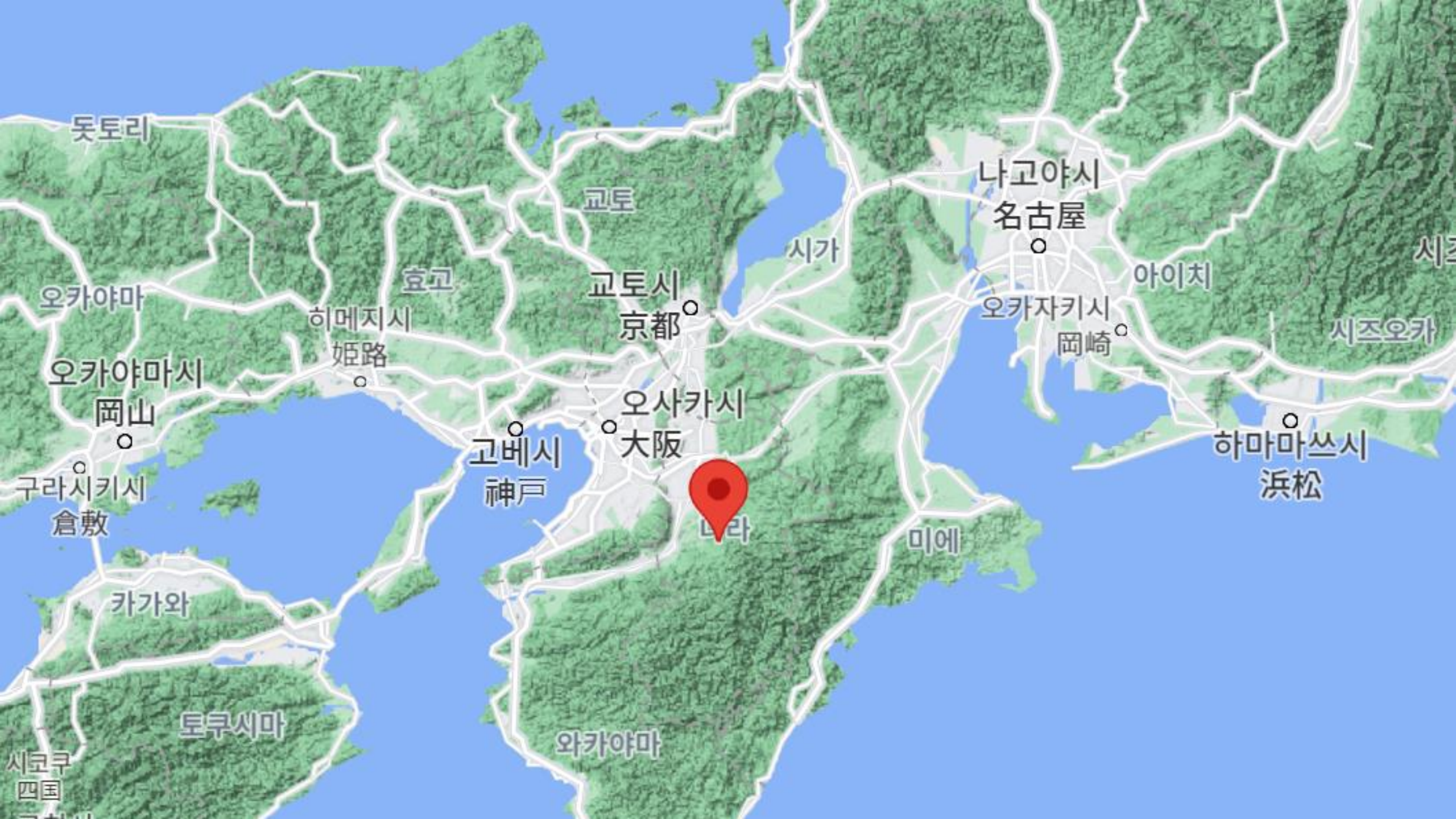
- 분쟁 속 폐위된 고다이고 대신 새로운 천황 세움 1336 (→쇼군의 지위 얻어내어 막부 개창)

- 정통의 천황임을 주장하는 고다이고의 별도의 정권 수립

→ 두 개의 조정 탄생







# ■ 남북조(南北朝) 시대

- 약 60년에 걸친 두 왕조의 병립 시기 1336~1392
- 전근대 천황이 현실적인 정치권력을 보유한 마지막 시기
- 지방의 무사들을 끌어들이는 무력 대결
- 『다이헤이키(太平記)』와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 왜구(倭寇)의 발흥
  - ← 계속된 전란으로 인한 중앙권력의 지방 장악력 약화

## 북조 (지묘인)

무로마치 막부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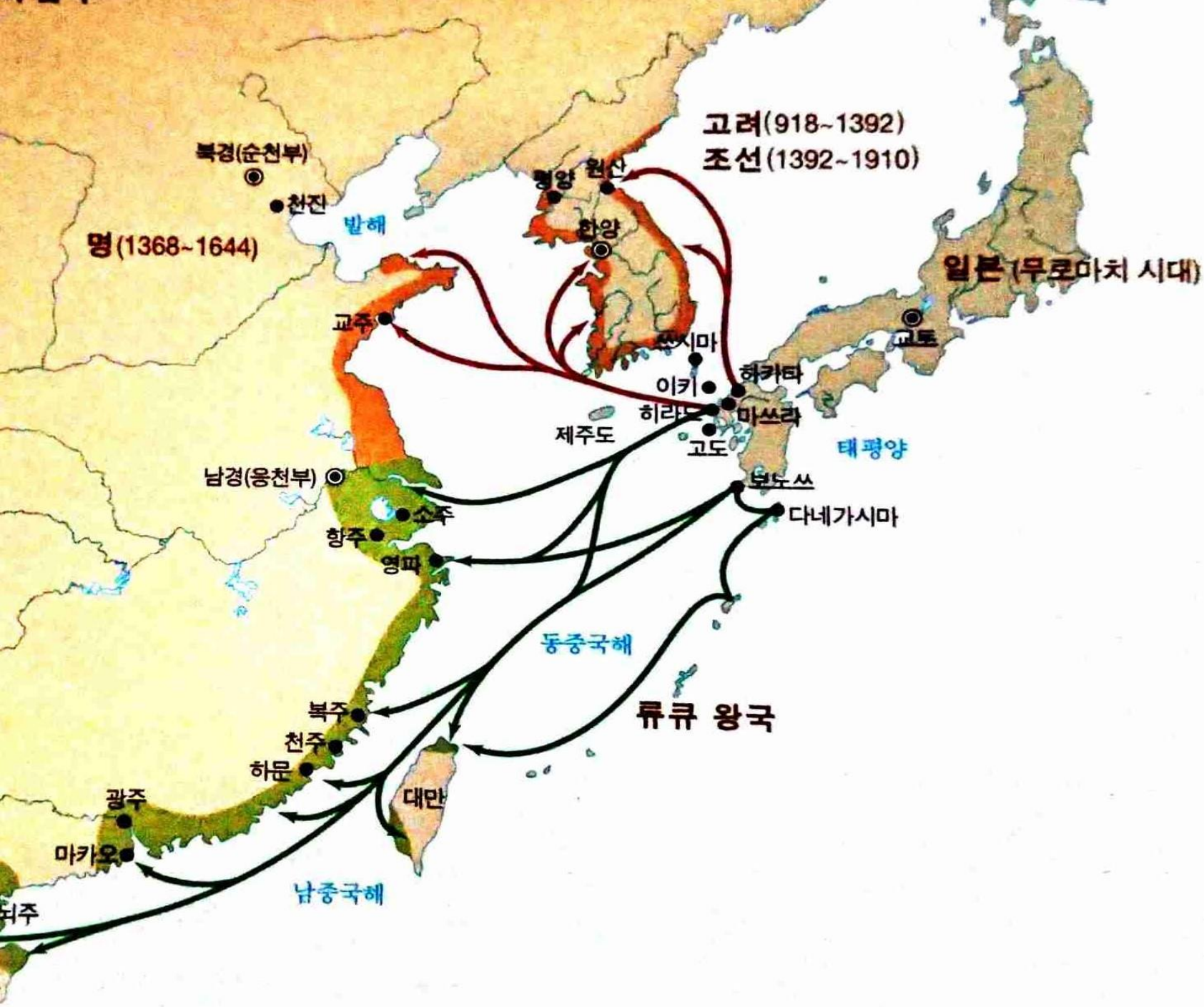
## 남조 (다이카쿠지)

고다이고의 왕통 계승









## ■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 14C 전반<sup>1336</sup>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의 무로마치에 세운 무사정권
- 천황은 무사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존재로 전락
- 슈고 다이묘(守護大名)의 등장
- 가마쿠라 막부와 달리 지방 자치적 힘의 확대

“잇쇼켄메이(一所懸命)”



#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 14C 후반1392 남북조 통합한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 15C 초1401 명에 사절 보내 책봉 받음

← 왜구 문제

- 일본국왕으로 인정받은 후 대외무역 독점
- 조선과 제후국으로서 동등한 관계 맺음
- 왕위 찬탈 성공 앞두고 사망



# ■ 무로마치 시대의 문화

- 교토를 중심으로 발달한 귀족 문화와 무사 문화의 융합
-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금각사(金閣寺)와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의 은각사(銀閣寺)
- 다도(茶道) 문화의 성행
- 교토 상류층 문화의 지방 전파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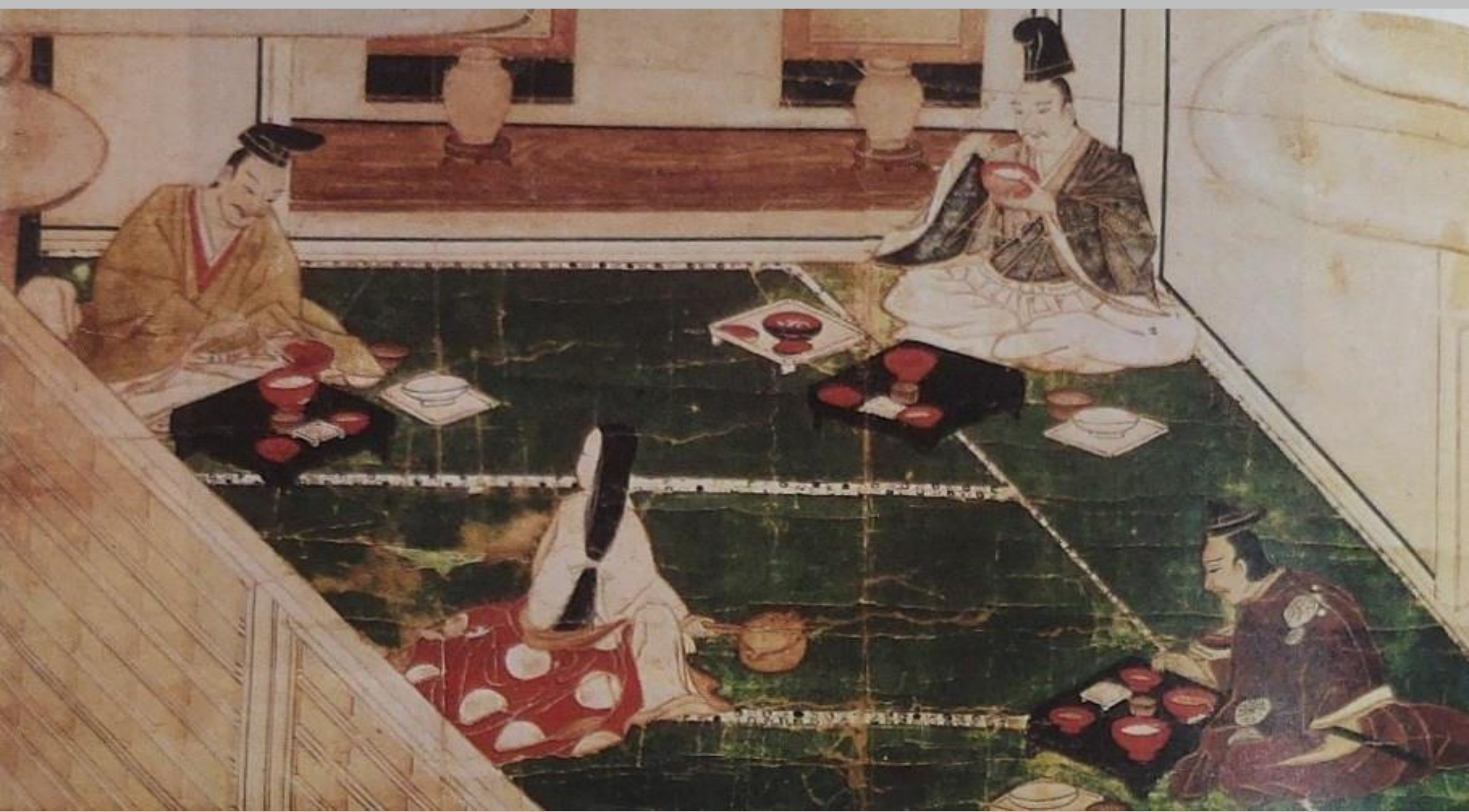




노(能)







감사합니다